

영암 ‘공무원은 처음입니다만’ 프로그램 성료

신규 공직자, 자기주도 공직생활 설계 · 성장 시간 가져

영암군이 16~24일 신규 공직자 26명이 참여하는 공직 적응 향상 프로그램 ‘영암군 공무원은 처음입니다만’을 진행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이 프로그램은, 20~30대 신규 공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부터 임용된 공직자들이 3개 조로 나눠 1일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주도 공직생활 설계 ·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규 공직자들은 ▶이스트 브레이킹 ‘무화과빵 만들기 체험’

▶고충은 말하고 공감은 높이고 ▶우리들의 마음정원 ‘나의 강점은 어떻게 찾나요?’ 등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참여 공직자들은 설문조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의 점수를 주며 만족도를 표현했다.

개인상담, 심리상담 추가, 폐쇄적 조직 문화 개선, 경직된 분위기 해소도 속제로 꼽았다.

영암군은 긍정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음건강 심리상담 사업’을 추진 중이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영암알기 라떼타임’도 계획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심뇌혈관질환 예방 ‘레드서클존’ 운영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1:1 맞춤 건강관리 제공

진도군 보건소는 최근 진도우체국 직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레드서클존’을 운영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 ·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스스로 예방 ·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군 보건소는 바쁜 직장생활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유관기

관들과 연계해 진도군 보건소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혈압 · 혈당 ·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1:1 맞춤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레드서클존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자기 혈관 숫자에 대해 알고, 심뇌혈관질환의 증상과 응급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해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맛짬무안몰, 다양한 할인 기획전 진행

내달 9일까지 햅양파 30% · 내달 2~15일 김 · 해초류 20%

무안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맛짬무안몰’이 본격적인 햅양파 출하 시기를 맞아 할인 기획전을 시작으로, 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먼저,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되는 ‘햅양파 할인전’에서는 맛과 품질이 뛰어난 무안 햅양파를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1인당 2매의 할인 쿠폰이 제공돼 소비자들 사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햅양파를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2일부터 15일까지는 ‘김(感)동 기획전’이 열린다.

김과 해초류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 쿠폰이 1인당 2매 제공되

며, 실속 있는 선물용 품목이 주를 이루어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매월 둘째 주 평일에 열리는 특가 행사 ‘오!맛데이’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되며, 표고버섯, 군고구마, 양파즙, 떡볶이 떡 등 4개 품목에 대해 40%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누적 구매 실적이 높은 회원 100명을 선정해 방울토마토 2kg을 증정하는 ‘구매왕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여 꾸준한 호평을 이용해 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무안 향토발에서 정성껏 키운 햅양파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자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완도 해양바이오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본격화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착수... 정책 기반 전략 마련

연구 단지 조성 · 민간기업 투자 유치 추진 계획

완도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5개년(2026~2030) 기본 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 계획은「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립되며, 용역은 ‘25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태동기에 있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권역별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완도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기반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산업으로 핵심 원료인 해조류는 해양바이오산업 원료

별 시장 중 가장 비중이 크고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건강 기능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완도군은 김, 미역, 톳 등 해조류 생산량이 전국 대비 52%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원료 생산 또는 조미 가공 등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해양바이오산업 또는 건강 기능성 식품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해양바이오산업의 정책,



기술, 시장, 투자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산업 여건,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업 형태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해양바이오 등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완도군을 전국 단위의 해조류 소재 공급 기지로 구축하고자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조성

과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를 활용해 군 산업 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신안 ‘청년바다마을’ 조성... 100억 원 사업비 확보

해수부 공모 선정...청년 주거 · 일자리 해결 ‘복합주거단지’ 조성

신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청년바다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바다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귀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신안군은 대상 사업지구를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이 있는 임자도로 선정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촌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의 성과는 철저한 지역 분석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끌어 낸 결과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인구소멸은 곧 지방소멸을 뜻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돌아와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또한, 근 3년여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작게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안·정경옥 기자

‘해남배추 활용’ 기능성 표시 김치 개발 착수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연내 국내외 심의 등 록



해남군이 ‘기능성 표시 김치’로 해남김치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 김치는 인삼, 홍삼, 스피루리나 등 29가지의 기능성 원료를 첨가해 제조한 김치를 말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10여종의 기능성 표시 김치가 출시돼 한화 약 261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여종의 기능성 표시 김치가 개발돼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최대 김치 수출시장인 일본 진출을 목표로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기능성표시 김치를 개발하고 국내외 심의 등록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남배추활용 기능성 표시 김치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을 사용해 건강한 김치를 제공하고 국내 및 수출 연계를 통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기능성 표시 김치뿐 아니라 차별화된 해남 김치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목포 법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 납부

목포시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인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월 법인세 신고 시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세정과나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할 수 있다”며 “월말에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